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재판관들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친동성애 성향 지자체 ‘조례’ 보류, 철회 잇따라

대전시는 인권조례 유보, 전북 시행규칙 철회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성애 옹호, 조장 및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을 잇따라 보류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지난 1월에 연기한데 이어 3월 말에도 심의를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전라북도도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담은 ‘전라북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노컷뉴스는 심현영 대전시의회 의원이 “학생인권은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라북도도 지난 4월 1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도청 관계자들과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 등 도내 기독교단체들

과 모임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시행규칙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시행규칙(안)이 ‘성적 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 사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권고 시행규칙을 담고 있어 동성애 옹호, 조장 및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다수의 공무원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GNPNEWS]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시편 2:10~11)

기도 |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일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도모가 끝없이 시도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생각의 끝이 어디인지를 이를 계기로 돌아보게 하소서. 하여, 어리석은 인생의 생각이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주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 짐니아, 거리의 전도자

제공: WMM

짐니아의 여름. 복잡한 대로 한편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청년이 중년의 여인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다. 고개를 돌린 여인에게서 단호한 거절이 느껴진다. 그와 대조적으로 비스듬히 보이는 청년의 옆얼굴에 간절함이 느껴진다.

무엇을 저리도 간절히 전하고 싶고, 무엇을 저리도 단호히 거절하

고 싶을까. ‘복음’.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거는 사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신 사랑. 한때는 박해자요 복음을 거절했던 자가 이 사랑에 매이면 복음은 생명이요, 전부가 된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다.

모든 자가 나와 같이 복음에 매

인 자 되길,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길! 우리에게는 복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 지금, 이 복음을 받아야 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6:29)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33)

행복한 결혼생활? 현실은 불행하신가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결혼하기로 결정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을 드리고 싶군요. 이 글을 마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결혼을 위해 준비한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쌍씩 수많은 커플들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결혼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부

터 조금씩 다투기 시작하고, 결국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연애하는 커플과 결혼한 사이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죠? 왜 일까요?

가정은 누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아내? 부부 간의 불화는 항상 이 패권 다툼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생각이 옳고 남편은 자기 의견이 옳아서,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행을 느낍니다. 이것이 되풀이되면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같

을 수 있을까요?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내도 남편도 자기 가정의 주인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주인이 없습니까? 있다면 누가 가정의 주인이란 말입니까? 당신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과 당신 가정을 아름다운 질서와 완전한 사랑 속에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도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을 당신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빚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당신과 당신 가정에 참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아내도 남편도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하는 기쁨과 참사랑의 가정입니다. [GNPNEWS]

INSIDE

02 뉴스 | 한국 수업 시간에 동성애 실체 교육한 중학교 교사, 징계 위기

03 특별기획 | 존 맥아더 미국에서 발생하는 가장 파괴적인 테러의 주체, ‘대법원’

05 인터뷰 | 김인화 “영어보다 더욱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심다”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때늦은 후회란 결코 없다!”

08 뷰즈인 북스 | 천국을 말하다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한국

수업 시간에 동성애 실체 교육한 중학교 교사, 징계 위기



출처: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건사연' 블로그 캡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애 비판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독교언론에 따르면, 서울 K중학교의 Y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상관성 등 동성애에 대

한 실체를 소개했다. 그런데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녹음한 뒤 민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했고, 이에 이 교육청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사에 나섰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중학교 측에 Y교사가 동성애에 대해 교육한 자료 일체와 교육의 취지 및 경위 등을 담은 Y교사의 소명서, 학

교 측의 조치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측은 아직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는 민원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일 뿐, 동성애 관련 접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민원을 제기한 측과 Y교사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뒤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Y교사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Y교사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GNPNEWS]

아메리카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도모임 허용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 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기도모임을 계속해도 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제5 미 순회항소법원은 미국인본주의협회(AHA)와 이 학교 졸업생이 학교재학 당시 기도모임이 ‘폭력적이고 불편한 느낌을 줬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도행위가 강요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학교 내의 기도모임은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97년부터 시작된 기도모임은 한 학생의 국

기에 대한 맹세에 이어 또 다른 학생이 1분간 선언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기도하는 순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 명의 판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고 그 가운데 몇몇 학생들이 모임을 대표하여 진행되는 기도모임은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들은 공공시설인 공립학교 시설을 특정 종교를 믿는 주민들이나 단체에 장소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수정헌법에 따른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혹은 옹호로 인



출처: Private school review 캡처.

정될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벌이는 활동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GNPNEWS]

아메리카

미국 신자들, “무교회주의로 빠지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전문기관 바나그롭이 자신의 신앙을 중요시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투데이에 따르면, ‘자신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교회주의로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2004년에는 겨우 7%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1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신앙고백을 하고 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러한 무교회론자들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주변의 신자들과 기독교의 핵심교리들을 인정하며 공유하고 있다. 그들 중 95%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심,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번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나그롭의 록산 스톤 편집장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믿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 대한 믿음은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支)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톤은 “지교회는 이러한 성도들과 자신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는 존재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4.9~4.1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유엔평화군’의 뒷모습...12년간 성범죄 2000여 건

지난 12년간 세계 각국에 파견된 평화유지군과 직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2000건에 달한다고 유엔 내부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한 아이티 소녀는 12살 때부터 3년간 유엔 평화유지군 50명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어린이의 증언이 잇따랐다.

주여,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공황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로 이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는 믿음을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슬람 무장조직, 어린이 동원 자폭테러 급증...올해만 27명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보코하람이 자살폭탄테러에 어린이를 동원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올해 1분기만 27명이 희생됐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아동기금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코하람의 활동 근거지인 4개국(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에서 자폭테러에 동원된 어린이는 올해 1분기에만 27명에 이른다.

하나님, 죄우를 분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보코하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에 피폐해진 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집트 콥트교회 연쇄 폭탄 공격 최소 36명 사망

이집트 북부 지역에서 9일(현지시간) 종려주일을 맞아 콥트기독교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겨냥한 연쇄 폭탄 공격으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130명을 넘어섰다고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이 보도했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는 이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주셔서 최후 승리를 이 땅에서 계속 누리도록 힘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GNPNEWS]

알림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한 간증이나 믿음의 고백을 나눠주세요(7, 8면 참조) 문의 ☎070-7417-0408, 010-6326-4641, gnmedia@gnm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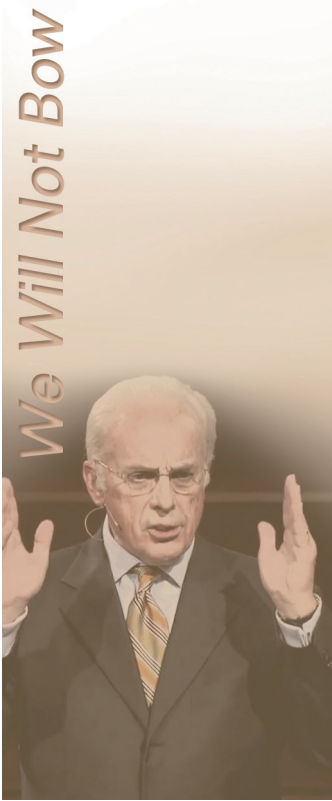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4월 4주 ~ 5월 1주

<p>4월 4주(4.24~4.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신안/ 열방선교센터 (강**) 010-7364-9982 ▶ 경기 분당/ 선한목자교회 (유**) 010-3689-7133 ▶ 경기 부천/ 내동교회 (이**) 010-9600-1408 ▶ 강원 속초/ 개인 가정 (최**) 010-8373-1273 	<p>5월 1주(5.1~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산/ 안산은총교회 (전**) 010-5337-2771 5.1~2, 4~5(10시~12시) ▶ 경기 안산/ 안산순복음교회 (감**) 010-8432-3698 5.1~5(14시~19시) ▶ 경기 시흥/ 은혜교회 (위인아) 031-432-1590
<p>4.24~25, 27~28(10시~12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감**) 010-8432-3698 	<p>5.5(08시~20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김포/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p>4.24~28(14시~19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시흥/ 은혜교회 (위인아) 031-432-1590 	<p>5.5~6(22시~22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광진/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p>4.28(08시~20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전주/ 전주시향교회 (정**) 010-8295-6889 	<p>5.6(06시~18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관악/ 신림감리교회 (강**) 010-5408-6348
<p>4.25~28(06시~12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김포/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p>기도참여 문의</p> <p>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070-4803-9026~7, 010-5424-4641 www.prayer24365.org</p>
<p>4.28~29(22시~22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광진/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특별기획 |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1)

미국에서 발생하는 가장 파괴적인 테러의 주체, '대법원'

미국은 지금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주된 이슈로 세속적인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존 맥 아더 목사의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에 관한 설교를 몇 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현재 미국은 다양한 테러리스트의 공격 앞에 놓여 있다. 관점에 따라 파괴적인 테러행위들을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겠지만, 나는 미국을 향한 가장 큰 테러 두 가지가 미 대법원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말하고 싶다. 어떤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미국의 대법원이 그 테러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첫 번째는 낙태의 합법화다. 낙태 합법화 이후, 수백만의 태아들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살육됐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어린 생명들의 피가 이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다.

대법원에 의해 자행된 두 번째 엄청난 테러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다. 낙태가 모성의 파괴를 가져온다면, 동성결혼은 가족 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다. 폭발이나, 폭행이나, 사람들에 대한 신체적 상해 없이 그런 테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테러를 막아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지닌 법의 수호자들에 의해 테러를 당하고 있다.

어떠한 인간의 법정도 윤리를 다시 정의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미국 법정은 살인을 살인이 아니라 하고, 결혼을 결혼이 아니라고 하며,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

생명의 창조자이자 결혼과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윤리와 다른 윤리를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신성모독의 한 형태다.

미국의 최고위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을 취했다. 사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만드는 최악 되고 부패한 인간 마음의 배후는 사탄과 마귀의 영역이다. 성경은 사탄이 온 세상을 주관한다 말하고 온 세상이 악한 세력 안에 놓여 있다고 한다. 사탄은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모든 빛 된 것들과 모든 진리와 모든 순수함과 모든 거룩함과 모든 선함과 모든 좋은 것들을 미워하고 파괴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의 궁극적 배후는 사탄

나는 미국이 몇백 년 동안 이런 일상적인 충돌에서 아주 드물게 유예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유예는 이제 끝났다. 또한 진짜 논쟁거리는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등이 아니다. 진짜 이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경을, 교회를,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사회와 양식 있는 문명사회를 위해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분의 규율을, 그분의 화평을, 그분의 현세적 축복을,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의로 우심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 평생을 연합하여 살며 자녀를 갖게 했는데, 그것이 결혼이다. 하지만 창세기 19장에서 이미 일부다처제, 근친상간, 매춘, 동성애가 만연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늘 인간 사회를 특징지어온 타락들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서구에서 기독교 윤리관의 우세한 영향으로 그 행위들이 다소 유예되어 왔을 뿐이다.

가족은 작은 독립 주권단위로도 덕적 부패의 지배를 막는 작은 장애물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세대는 지금 결혼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가족을 흠어버리고 가정을 파괴하여 작은 독립 주권 장벽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모든 결혼을 완전히 없애버려, 시민들이 어떤 사회적 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작은 독립 주권 단위를 갖지 못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속할 수 없다. 그들은 공공의 아이들로 교육체제에, 국가에, 마을에 속해 있지만 각자의 부모에게 속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리건주에서는 아이들이 15세가 되면 부모에게 말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정부가 허가 및 수술비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것은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닌 가정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는 시도이다. 가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같은 시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2015.7) <계속> [GNPNEWS]

초점

차별금지법, 한국 사회의 세속화 향배 가를 'жат대'

대선후보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오는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를 원천봉쇄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태도가 한국 사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간 미래한국이 최근 보도했다.

동성애문제 전문가들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친동성애 인식 이후, 미국 사회의 친동성애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됐으며, 차기 한국 대통령의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세속화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포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해왔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



▶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출처: 서울신문)

로 내걸고, 실제로 2013년에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의 공동 발의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는 동성애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최근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사라지게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며 '추가로 차별금지법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친동성애 인식 이후 확산

한편, 미국의 경우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5:4로 통과시켜 미국 결혼의 개념을 바꾸는 결정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 미국 사회를 친 동성애적인 사회분위기로 변질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적 신앙에 따른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을 이유로 구속, 징계, 벌금을 부과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아론과 멜리사 부부는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으로부터 이들 동성커플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

혔다는 이유로 벌금 13만5000달러(약 1억5000만 원)를 선고받았다.

또 2003년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행위와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 학생들 가운데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인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물을 이용한 성행위인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에 등 극단적인 성적 행위도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인정되어 함께 허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지 않을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GNPNEWS]

기획 | 다시 집으로(3)

“유리창 차단벽을 마주하고 아들과 기도, 기적이었다”

미국의 중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동성애와 마약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된 아들 크리스토퍼 위안과, 아들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단을 앞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의 용사가 된 어머니 안젤라 위안의 수기 '다시 집으로'(대성출판사, 2017)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안젤라, “내 영혼 평안해”

변호사와 함께 애틀랜타 임시 구치소로 갔다. 이 안에서 만날 사람은 이제는 죄수가 되어버린 내 소중한 아들이었다. 이 현실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저를 군세계 해주세요.”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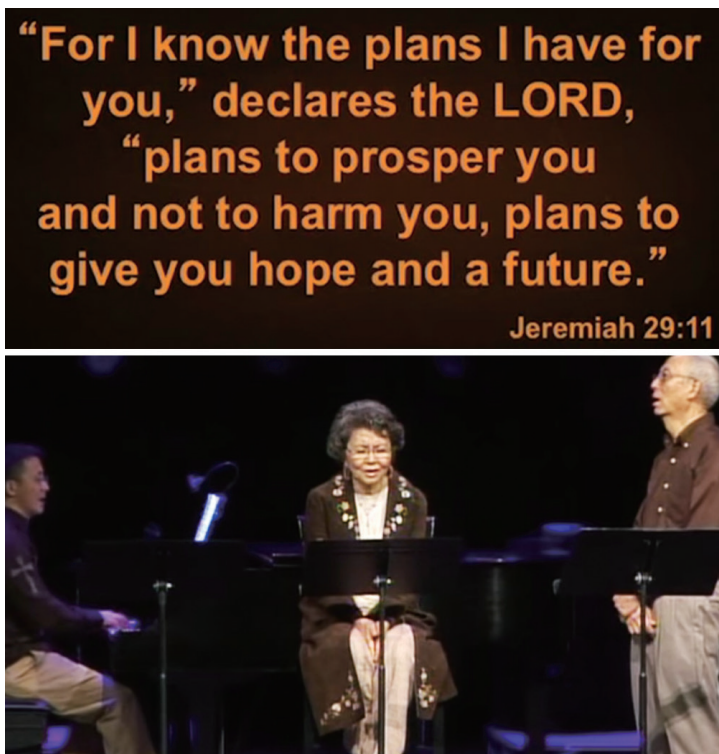
유리 차단벽 건너편의 크리스토퍼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두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아들은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었다. 아들의 범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이렇게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 크리스토퍼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바닥을 마주 대고 기도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내 아들과 함께 기도하더니, 기적이었다.

크리스토퍼는 수신자부담으로 거의 매일 우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곤궁에 처한 것과 별개로 오래 소원했던 아들과 다시 가까이 지낸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았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날, 아들은 HIV 양성판정 소식을 전해왔다. 아들이 게이라는 소식을 접한 이래, 크리스토퍼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설마 했던 악몽이 현실이 됐다. 온몸을 칼로 도려낸 듯했다. 겨우겨우 기도실로 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다. 비통을 가누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슬픔 한가운데서 적막이 찾아오고 찬송가 한 곡조가 떠올랐다. 내 영혼 평안해... 시편 56편 8절이 떠올랐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고 슬픔을 함께 나누셨다. 나는 혼자 아니었다.

크리스토퍼, “재앙이 아닌 평안”

구치소에서 사귄 크리스의 부모님은 기독교인이었다. 우리는 같이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병원호출을 받았다.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당신이 49311-019...크리스 위안인가요?” 그 숫자가 나왔다. 간호사는 검진결과를



▶ 크리스토퍼의 간증 집회 중. 그의 삶을 바꾸어버린 말씀 렘 29:11과(위) 부모님과 함께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를 찬송하는 모습(아래) (출처: youtube캡처).

보다가 당황한 듯 종이에 펜으로 무언가를 적어 내밀었다. HIV+. 짐작은 하면서도 외면했었던 것. 하필 생명력을 되찾고 희망을 본 이 때, 죽음을 선고받았다.

얼마 후 애틀랜타 연방 교도소로 이감됐다. 하루 23시간을 감금하는 보안등급이 높은 곳이었다. HIV 감염 문제도 있으니 내심 단기 형

량을 기대했지만, 9.1톤에 달하는 각종 약물을 유통한 내게 범정은 72개월 징역을 선고했다. 수치스런 알몸 수색에도 자존심을 죽이고 잠는 법을 터득하며 감방에 들어갔다.

내 남은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 비좁은 침상에 누워

있는데 모서리에 쓴 글이 눈에 들어왔다. “심심한 사람은 예레미야 29:11을 읽는다.” 녹스 사물함을 뒤지니 성경책이 나왔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인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 희망. 이제는 내게 사라진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도 그런 것들을 갖고 싶었다. 성경을 계속 읽었다. 하나님이 나를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구절이 영혼을 어루만졌다. 그분은 나를 중죄인으로 보지도 않고, 숫자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값야 할 빛도 없고, 수치스러운 과거도 없다고 했다. 나도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얼마 뒤, 나는 렉싱턴 연방교도소 메디컬센터로 이송됐다. 약물 중독자들에게는 ‘마약 재활원’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이곳 생활은 훨씬 자유로웠다. 저녁 무렵 수감도, 쇠사슬도, 감시자도 없이 운동장을 거닐었다. 석 달간 쫓겨난 공기만 마시고 살아온 내게 이런 곳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운동하는 수감자들의 모습과 사람들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다. 어쩌면 이곳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선교지에서 만난 난민, 저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길”

믿음의 훈련은 때와 자리에 상관 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깨닫습니다. 주위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들과 소소한 일상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주님은 더욱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생명과 승리가 오직 그분께 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껍데기’라도 지키려는 그들

얼마 전 이 나라 중부 도시인 K 지역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군경과 민간인 37명이 사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만행이 곳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 수단 난민들 (출처: africa.com 캡처)

곳 정부는 더욱 삼엄한 경계태세와 테러방지법 강화를 통해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인 선교사 세 가정과 단기팀 세 명이 추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거주는 허용하지만 선교활동은 금한다는 것이 이 나라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국제 사회의 원조와 선교사들의 난민구제활동은 원하지만 이슬람을

수호하는 국가라는 나름대로의 정체성만큼은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느껴졌습니다.

아무 능력도, 생명도 없는 가짜 신앙을 그 껍데기라도 지키고자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 손끝에서 떨어지는 양식만 구하고 그 생명은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두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또 하나의 순종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극심한 인종차별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단 난민들은 사회적으로 더 소외되어 있습니다.

선교활동 규제 가운데 새로이 열린 길

저는 지난 4년 동안 수단에서 사역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수단 난민들의 상황을 알리는 영상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감독님을 도와 취재와 통역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난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단 난민

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접하지 않았다면 저도 몰랐을 테니까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난민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상황을 듣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아주머니부터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슬픔과 원망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재 대신 화관을 씌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 맺기까지, 더디게 느껴지고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아버지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GNPNEWS]

Y국 K, J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영어보다 더욱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심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믿고,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이는 숫자일 뿐,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와 같이 지금도 어린 아이처럼 주를 향한 갈망이 크다는 선교영어훈련학교(Good News Friends; GNF)의 김인화 선교사를 만났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56년에 태어났어요. 적지 않은 나이죠? 어머니 쪽으로는 4대째, 아버지 쪽으로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3남7녀 중 막내로 공주 대접을 받으며 자랐어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삶은 일상이었고, 초등학교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신학교를 바로 가기보다는 일반대학에 지원할 것을 권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입시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라는 단어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세의료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2년간 치위생 공부를 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섬겨보는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죠. 수료 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생화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실패의 충격

- 새로운 삶이 펼쳐졌나요?

“네. 처음에는 한 교회가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입학한 학교 기숙사의 정원이 초과됐기 때문이죠. 그곳은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죠. 어느 날 인도에서 온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은 너무 독선적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에 제가 시원하게 반박할 말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받게 됐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 대해 정의해 보세요.’라는 질문지였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교회 다니세요?’라고 묻잖아요. 제가 그 질문 앞에서 망설이자 한 친구는 제가 영어가 서툴러서 답을 못 적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라는 짤막한 자신의 답을 보여줬어요. 사실은 정말 답을 몰랐는데 말이죠.”

- 무척 당혹스런 경험이셨겠네요.

“네,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해 한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나눔 중에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라고 대답했어요. 답이 충분치 않았던지 그 친구가 두 번을 더 물더군요. ‘When did you become a christian?(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니?), How(어떻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공부 모임에 나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하고 살았죠. 어느 늦은 밤,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더군요. 그때 또렷하게 ‘너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이 내면에서 들렸어요. 대답을 전혀 못 하겠더군요. 문득 1년 전, 큰 언니가 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저의 인생의 끝은 어딘지 확신이 없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을 왜 너의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그날 밤 성경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사람들을 모아 성경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주님이 주셨던 질문의 답을 찾은 것이죠.”

- 그리고 삶이 달라졌나요?

“성경이 그저 윤리 도덕적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곧 생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나라를 우리 세대에’라는 모토로 삼은 한 복음주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제가 학생인지, 전도자인지 모를 정도로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사가 되려고 했지만, 영혼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 몸을 치료하는 일보다 존재가 치료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0년간 교회를 섬기던 중, 주님이 신학 공부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관계되어 있던 한 단체의 국제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저에게 통역 요청이 왔어요. 1년간 한국에서 돕기로 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비자를 신청했는데, 93년 그때는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았어요. 발급이 되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비자가 나온거죠. 그때부터 한국에서 무려 10년이나 머물게 됐어요.”

-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님 주신 비전이 선교사니까 공부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

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에 다녔는데, 졸업할 즈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안수를 받으려고 신학을 한 것은 아니어서 조금 머뭇거렸어요. 안수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주님께 물던 중, 90세된 은퇴 여전도사님 댁에 저희 어머니와 심방을 가게 됐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을 부르기로 하셨어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라는 가사가 좋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제게 계속 남았어요. 내가 주님께 은혜의 사슬로 매이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면 순종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안수를 받은 후, 아무 연고도 없는 스칸디나비아 땅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EU)에 속하지 않은 노르웨이가 제가 갈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저의 삶을 1년간 정리하고 노르웨이로 가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선교사로 삶을 드리다

- 선교지에 갈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살던 곳 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해 한 선교단체를 소개받아 들어가게 됐어요. 부르심은 분명한데 별다른 말씀을 듣지 못해 또 8년간 있게 됐어요(웃음). 매일 설교하고 준비하던 사역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5년간 모든 후원도, 조그만 자리도 섬기지 못하게 되자 ‘금단현상’이 오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아주 가난해졌어요. 그때 복음이 선포되는 어느 자리든 저를 초대해 달라고 주님께 강청했어요. 그러다 2004년에 LA에서 열리는 복음훈련 과정에 한 주 동안 참여하게 됐어요. 많은 훈련도 받고, 훈련도 시켜 봤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더욱 깨닫게 됐죠. 총체적인 진리 앞에 서면서 저 자신은 정말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마음의 사형선고가 내려졌어요.”

- 그 후, 노르웨이로 가게 되신 건가요?

“네, 2010년 우연히 예수전도단 노르웨이 기도본부에서 같이 사역할 사람을 찾는다는 포스터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주실 것을 기다리며 지인들에게 기도요청을 해두었죠. 다음해 6월, 노르웨이 기도본부에서 노르웨이에 와 달라는 재요청이 이메일로 왔어요. 약 한 달 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테러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확증하고 가게



순종의 삶을 주님께 드린 김인화 선교사

됐죠. 그리고 2014년 어느 날, 유럽의 몇몇 지역을 순회하던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음사관학교 아웃리치 팀을 받을 것을 요청 받았어요. 이전에 제가 이 훈련학교에 가고 싶어서 훈련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나면서 마치 제가 훈련생이 된 듯 했어요. 약 4년간의 사역이 마쳐질 때쯤, 주님이 복음사관학교 훈련생으로 갈 마음을 주셨어요.”

-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네요.

“이제 사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만 남는 학교,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는 학교’라는 그 훈련의 모토처럼 정말 말씀만 남는 시간이었어요. 이제껏 들어온 진리가 실제 되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어요. 훈련을 마칠 무렵,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한국에 남게 됐어요.”

- 그리고 지금 사역으로 이어지신 건가요?

“네, 선교사들을 위해 영어를 가르치면 어떻겠냐며 한 선교사님이 권유해 주셨어요. 영어권 나라에 살았다는 경험밖에 없는 제게 이 일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O.K.’하기로 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주님은 또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때라고 하셨어요. 영어를 구사할 줄 알면, 영어권이 아닌 열방 어디를 가도 한 번의 통역으로 누구에게나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어요. 일평생 자기만을 사랑하는 옛 자아와 씨름하며 살던 제게 이제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

어졌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영어가 필요하다면 영어가 마땅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해야겠더군요. 그렇게 두 학기를 지나고 보니, 제가 복음을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섬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한 영어교육 사역

- 어떻게 새롭게 하셨나요?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 사랑이 없는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주님께 믿음의 파산신청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8년 동안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언젠가 무너져야 할 영역이었죠. 여전히 땅을 깊이 파야하는데도 저는 계속 저만의 견고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간간함을 쓸 때, 주님은 ‘너, 그 집 금방 무너질걸?’이라고 하셨죠.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집을 세우지 못해도 진정한 반석을 만날 때까지 계속 땅을 파겠다고 고백했죠. 주님은 이 고백을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제 힘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쉽게 좌절하게 되더군요. 사랑의 영역을 통해 사실 모든 영역이 주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교만함은 절대 은혜를 구하지 않더군요. 주님은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하시는데, 저의 동기가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죠.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신지 알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날수록 주님과 저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지죠.”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은혜의 복음(1)

“때늦은 후회란 결코 없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120 여년, 그동안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고난과 성장, 선교적 부흥 등은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한 역사학자의 주장대로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미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는 무너져가고 있다. ‘2, 3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예견하고 대처했다더라...’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막급하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 삼손과 사울.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가 다 알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너무 늦은 사울의 후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의 멘토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었고, 다윗과 요나단은 그의 충성스런 부하요, 아들이었다.

모든 기회를 가장 크게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후회 막급한 삶을 살았다. 사무엘을 통해 주님은 그에게 충분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무엘이 죽은 후,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울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급기야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찾았다. 그러나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다.

삼손은 또 어땠나? 그는 끊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나머지 ‘나실인’ 답지 않게 살다가 육체로 그 인생의 끝을 마주했다.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힌 비참한 모습으로,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실존과 함께 짓밟히자 뒤늦게 후회했다. 그러나 그는 후회에 머물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강청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



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삿 16:28) 정말 비참하고 실패한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죽은 그와 함께 죽은 사람의 수는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야말로 통쾌한 대역

전승이었다.

후회를 넘어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 그도 처음에는 악을 쓰며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가 왔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눅 23:42) 주님은 ‘너무

늦었다’고 거절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 때 늦은 후회를 하던 사울, 그제라도 우편강도처럼 ‘마지막 영광’을 구했다더라면 주님이 거절하실 리는 만무했다.

때늦은 후회란 없다. 은혜는 때늦은 것마저 은혜 되게 하신다.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에겐 은혜의 기회이다. 더 이상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고 받아야 한다. 아직도 결코 늦지 않았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부를 걸고 발버둥 쳐도 헛되고 헛되다.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없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망은 결코 없다.(2016.5 메시지 정리)<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LOG미션 대표)

복음과기도미디어

복음과기도 메시지 오디오 CD 시리즈



각 오디오CD(2장 한세트), 6000원(택배비 별도) 메시지가 CD 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 [느헤미야52기도정보집 특별판]



- 1권 : 복음의 영광
- 2권 : 오직 은혜의 복음
- 3권 :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 4권 :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 5권 : 절대 믿음
- 6권 :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세트 : 43,000원 날권 : 8,000원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순종하는 것

-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 편에 선 우리 야군도 서로 참 많이 달라요. 어느 날,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싸우야 할 싸움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라 없이, 열방 없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나의 일과 열방의 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 요즘은 어떻게 순종의 삶을 드리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가 계획해서 시작한 일이 없어요. 만유의 왕이신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

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쁜 군주가 아니시니 정말 안전해요. 우리에게 당신을 섬김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실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보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요.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은 단지 한 평짜리 땅, 바로 제 심령인 에덴동산인데, 주님 언제든 편안히 찾아오셔야죠.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GNPNEWS]

S.Y.





“성경일독, 하나님의 열망을 깨닫는 시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4-48)

살면서 수없이 시도해봤던 성경일독이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행위로만 해왔던 성경일독이 왜 그리 지루하고 졸린 일이었는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성경일독훈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알게 되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다. 성경을 나오는 무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들로만 여겼던 어리석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하셨다. 하루하루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제껏 보았고 들었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를 비추는 거울로 다가왔다. 놀라웠다. 곧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목마름과 갈망이 밀려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망이 나를 압도해 갔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주님은 내 심령에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관이 없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포기치 않으셨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셔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마음 전부가 나를 삼키시는 듯 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 말이었다. 그래서 이 영광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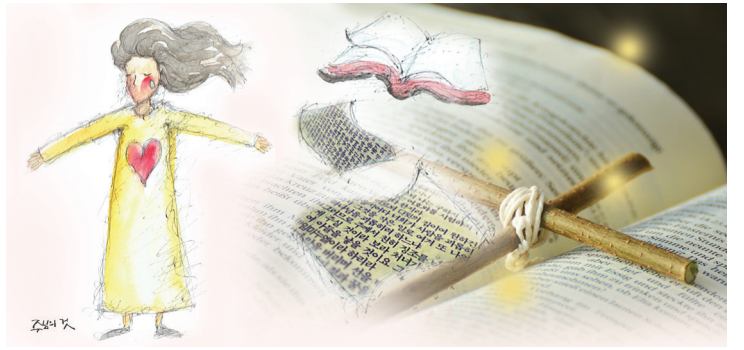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알기 전에 먼저 내게 완전한 심판이 행해져야 했다. 아담의 불순종, 가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쌓았던 바벨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 정육 때문에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끊임없는 우상숭배...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비참한 지경에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눈이 멀고, 귀가 먼 나는 고쳐서 회복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창녀 고멜과 같은 나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사랑을 누리는 원형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 이 삶이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보게 하셨다.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나와는 무관한 하나의 사건으로만 여겨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되게 하셨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

신약성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고 죽었던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동일하게 예수 생명 된 나와 교회의 고백이 되었다. 또한 나를 죄 사함 받고 천국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생명 다해 살았던 믿음의 경주의 바통이 나에게 넘겨졌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을 모른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장에 새기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 발에 등불인 말씀을 주셨는

데 어찌 내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으랴. 그 날이 더디 온다고 말하는 악한 종,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신부가 될 수 없다.

이제 예수님의 핏 값만큼 남김없이 살다가 이 세대에 다시 오실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고 싶다. 이 목마름으로 말씀을 계속 읽을 것이며 선교완성을 위해 더욱 열방을 올려드릴 것이다. 이전부터 부담을 주셨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두려워 순종하지 못했던 전도. 캠퍼스 안에서, 가정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과 그날의 꿈을 나누겠다. 사랑하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GNPNEWS]

김아용 자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한 청년

오래전 북한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만난 청년 하나가 컵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신덕수’라는 이름의 물이었는데 거기에는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고 오래 삽니다. - 김일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청년이 저보고 “선생,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고 오래 삽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권하기에 저는 “아니야. 생명은 조물주에게 달렸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 돌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 청년은 무심코 내뱉은 말로 인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다시 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누르며 살아왔을까? 얼마나 부르짖고 싶은 말이었을까! 단 한 번만이라도 소리 내어 부르고 싶었던 이름! 하나님!

실수로 내뱉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의가 보였습니다. 붙잡혀 죽더라도 한번 불러보았으니 소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 헬터에서 예배하는 북한 청년들의 모습(출처: 모퉁이돌 선교회)

찬송가를 외우고 있는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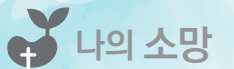
제가 아는 한 사람도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회에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묘 앞에서 한참을 울고는 예전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나 불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찬송

을 불렀습니다. 부르다 보니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습니다. 조카였습니다. 그 소년은 한 곡도, 한 절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곡이나 아느냐?”고 했더니 17살 난 소년의 대답이 한 300곡쯤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노래로, 가사로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형부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려가 재판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의 요구는 ‘예수를 모른다’는 말 한마디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나는 예수 앞에서 여러 번 실수하고, 하나님을 여러 번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마지막 순간에 변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그대로 끌려가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끊임없는 공격을 이기는 법”

중국내지선교회(CIM)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연약함에 끊임없이 몸부림치곤 했다. 테일러는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사탄의 치열한 공격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일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를 지속하는 것이다. 사탄은 언제나 성경을 대하려고 할 때 다른 일들로 주의를 흐트러뜨릴 것이다. 하다 못해 정리되지 않은 창문의 블라인드라도 보여 줄 것이다!”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변함 없는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거하기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사탄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친밀한 누림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끊임 없는 공격을 가한다. 이 위기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존 맥아더의 <천국을 말하다>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 중심까지 복음이 실제 되게 하시려는 뜻 안에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전쟁 같은 상황으로 휘몰아치듯 몰려올 때가 있다. 내게는 주로 육아와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상황으로 한바탕 사투를 벌인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미처 정서를 추스르지 못한

채 옛 습관으로 반응해버릴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자아 깊은 곳에서 나를 연민하는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천국! 다 이루신 복음으로 인해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린 채 요원하게만 여기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존 맥아더의 '천국을 말하다'는 이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을 핵심 주제로 천국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벗겨주고 성경을 근거로 구체적인 천국을 제시한다.

먼저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섞여 있는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 1970년대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유행했던 각종 천국과 천사들에 관한 책들과 사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 드러내 준다. 이것을 보며 성경 진리와 무관하면서도 성경적 용어를 써가며 교

회 안에서 유행했던 서적과 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 놀라게 여겨졌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도 예외일 수 없다. 교회가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자기만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이유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주의는 기독교인들을 천국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태의연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 선조들이 "세속적인 죄악"을 주제로 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우리 세대는 그에 비해 충분히 발전했다는 생각 속에 이런 문제를 얼마나 사소하게 지나치는지 말하고 있다. 위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땅의 것들을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을 수조차 없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천국 시민인지 의심해봐야 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역설적

이지만 천국 소망이 가득해야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의 기쁨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천국은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인내할 뿐이다. 만물의 본질을 생각할 때 세상의 장막은 곧 무너질 것이다. 허무와 절망의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물론 우리 역시 육체 안에 있기에 탄식한다. 육체는 죄와 슬픔과 죽음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실재였듯이 우리의 영생의 몸도 실재이기에 우리는 그 날을 꿈꾸며 아브라함처럼 오직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있다! 결국 기독교

교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신자들은 언젠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사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다른 성도들과 귀한 사귀를 나누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삶이다. 장차 천국에서 더욱 온전해지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현재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롭다 선언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인의 흔적과 이 땅의 허무한 상황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온 우주에서 악이 사라지고 죽음과 죄와 슬픔과 고통이 영원히 자취를 감출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 성전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천국을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GNPNEWS]

한보현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체육 수업, “주 안에서 성전 짓기”

나는 기독교에서 체육과목을 맡고 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매번 은혜가 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학기에는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갈 5:14, 새번역)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체육활동으로 해야 할지 주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러던 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0~21)라는 말씀을 보고 '주 안에서 성전 짓기'라는 수업을 계획했다. 쉽게 말하면 인간 탐 쌓기다.

수업을 준비하며 아이들이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서는 용기를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나 한 명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공동체를 어떻게 흔드는지, 또 한 명 한 명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붙잡아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3주간의 기본적인 근력운동과 체력운동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성전 짓기 수업이 시작되었다. 탐을 쌓아 올라갈 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했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 위에 서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했다. 아이들은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이론이 아닌 몸소 배우며 지체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갔다. 특히 자매들의 경우 무너지거나 넘어져서 다칠까 봐 무서워서 다른 지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망설였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 지체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한 주 한 주가 지나며 아이들은 점점 자신이 편한 자세가 아닌 위에 올라간 아이가 편하게 설 수 있는 자세로 버티기 시작했고, 내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힘을 배우고 무너질 수 없다고 고백했다. 또한 부딪히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모두가 바로 서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의 모습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장난치고, 집중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 다칠 뻔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주님은 나 자신과 아이들을 분리하고 아이들의 연약함에 대해선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마음을 드러내셨다.

수업을 계획했을 때는 아이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서로 함께 감당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내가 아이들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그렇게 감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잊고 말았다. 어느새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 진행을 잘하는 것과 내가 계획한 대로 수업이 짜임새 있게 되는 것에 만족하며, 그러지 못할 때는 분을 내고 있었다. 쓰임 받고 버림받기에 아주 딱 맞는 모습이였다.

이 수업을 통해 주님은 내게 몸이 어느 것 하나라도 분리될 수 없

는 것처럼 우리를 진짜 그런 '몸'으로 부르셨음을 알도록 하셨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다 내 것으로 받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게 하셨다. 아이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을 알아가는 수업시간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게 되었다. '아이들이 연합하여 만드는 성전은 우리가 진짜 한 몸임을 믿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아이들과 내가 믿음으로 성전을 짓는 활동을 할 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어떤 활동을, 어떤 모양의 성전을 만들지를 계획하기에 앞서 모든 시간을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결단했다. 앞으로의 수업 시간이 더욱 기대된다.'

[GNPNEWS]

이엘 교육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3. 31 ~ 4. 13 (가나다 순)

개인

김민성 김사회 김승수 김영세 김유남 김정대 김태완 박승은 안수경 안영숙 윤경석 이정희 이준진 이지영 이진관 장영선 정금자 정영숙 정옥영 정은채 정현임 조상국 조희광 최정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샘 안택원감리교회 은혜선교회 은혜의샘교회 주만교회 주하나교회 죽전교회 춘천침사교회 평안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